

# 陽羨詞派 詞論 研究\*

이 석 형\*\*

<目次>

I. 序論	IV. 聲律論
II. 尊體論	V. 結論
III. 風格論	

## I. 序論

陽羨詞派는 康熙 初年에 陽羨<sup>1)</sup>지방을 중심으로 활동했던 사파였다. 그 활동기간은 약 30년 정도에 불과하였지만<sup>2)</sup> 청대 사학 중흥에 대하여 선도

\* 이 논문은 2007학년도 중앙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한 것임.

\*\* 중앙대학교 중어학과 교수

- 1) 陽羨은 지금 江蘇省 宜興市の 옛 이름으로 清初 常州府 關州 餘姚 縣의 하나였다. 南明의 弘光 정권이 망한 이후 남방에서는 抗清의 열기가 식지 않았는데 양선 역시 반청 기운이 성한 곳이었다.
- 2) 嚴迪昌은 《陽羨詞派研究》에서 陽羨詞派를 세 시기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즉 順治 15년(1658)에서 康熙 7년(1668)까지를 형성기, 康熙 8년(1669)에서 康熙 17년(1678)까지를 흥성기, 康熙 18년(1679)에서 康熙 30년(1691) 전후한 시기를 쇠락기로 보았다.(嚴迪昌, 《陽羨詞派研究》 56-84쪽 참조) 그러나 사파의 형성은 그들이 표방하는 이론의 주장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陽羨詞派의 핵심인물인 陳維崧이 자신의 특색을 갖춘 명확한 사학 관념을 확립하게 되는 시기를 陽羨詞派가 형성된 시기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이 점에 기초하여 이강화는 陳維崧이 광릉의 사단과 결별하고 난 이후인 康熙 5년(1666)에 이르러야 陽羨詞派가 형성되었고, 蔣景祁가 세상을 떠난 康熙 34년(1695) 이후에는 陽羨詞派가 더 이상 그 세력을 지탱하기 어려웠다고 진단하였다.(李康化, 《明清之際江南詞學思想研究》 218-231쪽 참조)

적 역할을 담당하였다. 창시자는 陳維崧이며, 주요 인물로는 曹貞吉, 曹亮武, 任繩隗, 徐喈鳳, 蔣景祁, 史惟圓, 萬樹 등이 있다.

청 順治 초기의 江南 지역은 사 창작경향에 있어서 雲間詞派의 영향 하에 있었다. 강남은 각 지역을 중심으로 문인들의 詩社 모임을 통한 詞 창작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명말 승정 이후 새롭게 일기 시작한 詞學 중흥의 흐름이 계속 이어졌다. 그러나 각 지역의 사 창작 경향은 대동소이하였고, 타 지역과 분명하게 차별성을 띤 독자적인 詞學 주장을 내세우지도 않았다. 대체로 順治 연간의 사 창작 경향은 雲間詞派의 영향 하에서 오대 북송사의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陽羨詞派는 명청의 교체라는 사회 격변기에 활동하면서 이제까지와는 다른 새로운 詞學 관점을 제시하여 사체에 대한 인식을 일신하고 사 창작 활동에 생기를 더하여 청대 사로 하여금 雲間詞派의 소극적 작사 태도를 버리고 적극적으로 작사에 임할 수 있도록 견인한 사파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1980년대 이전까지 陽羨詞派는 詞學 연구자들에게 이렇다 할 주목을 받지 못하였다.<sup>3)</sup> 陽羨詞派에 대한 언급이 있기는 하였지만 사파출현의 선후 관계에 있어서 浙西詞派가 오히려 陽羨詞派에 앞서 나온 것이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순서가 뒤바뀐 서술이 등장하기도 하였다.<sup>4)</sup> 陽羨詞派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는 80년대 이후 청대문학 연구자인 嚴迪昌에 의해 이루어졌다. 그는《詞學》 제4집에 <論陽羨詞派><sup>5)</sup>를 발표하여 학계에 만연한 陽羨詞派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았고, 《清詞史》

3) 徐珂는 《清代詞學概論》에서 浙派와 常州派를 청대의 양대 사파로 소개하면서 陽羨派에 대하여는 언급하지 않았다.(3쪽-13쪽)

4) 賀光中の 《論清詞》의 上編 通論에서는 浙西派를 陽羨派 앞에 서술하여 절서파가 陽羨派보다 앞서 나온 사파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하였다.(6쪽-13쪽) 그러나 이러한 오해는 청초 사단을 개괄하면서 譚獻이 《篋中詞》에서 평한 말, 즉 “석창(朱彝尊) 기년(陳維崧)이 나오고서 본조의 사파가 비로소 형성되었다(錫鬯其年出, 而本朝詞派始成.)” “가경 이전에는 두 사람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 열에 일곱 여덟은 되었다(嘉慶以前, 爲二家牢籠者十居七八.)”는 말에서부터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5) 《詞學》 第4輯, 華僑師範大學出版社, 1986.8, 62-73쪽.

를 저술하면서 陽羨詞派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소개하였으며 이어서 《陽羨詞派研究》라는 연구서를 출판하여 양선 지역의 인문역사, 陽羨詞派의 시대 배경 및 사풍의 역사적 연원, 陽羨詞派의 형성과 그 성쇠과정, 陽羨詞派의 사학관, 陽羨詞派의 창작 성취, 陳維崧과 기타 양선사인 등 陽羨詞派에 대하여 포괄적이고도 심도 있는 논의를 전개하였다. 최근에 나온 중국문학사 및 사학 논저는 거의 모두 그의 연구 성과를 반영하고 있다.

필자는 수년간 명말 청초의 사학 중흥이란 주제에 관심을 가져왔다. 청대의 사학 중흥의 실체를 파악하고자 명말 雲間詞派와 청초 浙西詞派의 창시자인 朱彝尊의 사학이론을 분석하고 그것의 사학사상의 의의를 이끌어내는 시도를 했으며 사학이론과 실제 창작과의 연관성을 규명하는 작업으로 두 사파의 영수인 陳子龍과 朱彝尊의 사에 대한 연구도 함께 진행하였다. 陽羨詞派는 浙西詞派와 거의 비슷한 시기에 형성되었지만 사학이론에 있어 浙西詞派와는 분명한 견해차를 보이며 청초 사단에 큰 공헌을 하였다. 따라서 청초 사학의 중흥과 그 변화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그 중심에 있는 陽羨詞派 사학이론에 대한 연구도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필요에 의하여 시작되었다. 기존의 연구 성과를 기초로 사학사상 의미를 갖는 陽羨詞派 사학이론의 핵심을 분석하여 밝히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 II. 尊體論

존체는 사체의 지위를 높이려는 노력을 말한다. 사는 연회석상의 주홍을 돕기 위하여 지어진 태생적 한계로 인하여 처음부터 문인들의 천대를 받아왔다. ‘小道’ ‘詩餘’ ‘雕蟲小技’ 등으로 비하되던 사체의 지위를 제고하기 위하여 송대 이후 많은 사인들이 노력을 계속하였다. 송대 진행되었던 사의 詩化, 雅化 등은 모두 내용의 확대, 형식의 전아함을 통하여 사체의 지위를 제고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사는 원대 이후

쇠퇴의 길을 걸었으며 명말에 이르러 새롭게 일부 문인들의 관심을 끌기는 했으나 사체에 대한 인식의 변화는 거의 없었다.

명말 청초의 雲間詞派는 ‘사는 악부가 쇠하여 변한 것이다’<sup>6)</sup> ‘시와 악부는 근원이 같다’<sup>7)</sup>고 하여 음악문학이란 측면에서 악부 즉 시와 근원이 같다는 주장으로 사체의 지위를 높이려고 하였다. 또한 ‘시여’에 대한 기존 해석에 반대하여 “사는 시의 나머지가 아니라 바로 <구가> <구변>이 변화하여 음절을 달리한 것이라”<sup>8)</sup> 하면서 사체가 《초사》에서 변화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아울러 사체의 특성을 纖弱 婉媚한 것으로 보고 이러한 특성에 맞춰 뛰어난 사 작품을 짓기란 어렵기 때문에 역대로 才人들이 작사 행위를 그만두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송사가 독창적인 경지에 이르렀는데 소도라도 독창적인 경지에 이르면 불만하다고 하면서 사체의 지위를 긍정하려 하였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평가할 때 雲間詞派는 결국 소도의 관념을 뛰어넘지는 못하였다.<sup>9)</sup>

明詞 쇠퇴의 원인을 진단하고 이를 바로잡는 것은 청초 사학계의 과제였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먼저 사체에 대한 관념에 대한 분석과 판단에서부터 시작해야 했다. 이제껏 小道로 여겨왔던 사체에 대하여 새로운 가치 개념을 부여하지 않으면 새롭게 조명받고 있는 사의 창작을 진작시키고자 하는 어떠한 시도도 수포로 돌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陽羨詞派의 사학상의 가장 큰 공헌은 이론적으로나 실천적인 면에서 청초 사단에 팽배해 있던 소도 관념을 일소하고 사의 존재를 실현한 데 있다. 陽羨詞派 가운데 가장 먼저 소도 관념에 비판적인 견해를 피력한 이는 任繩隗(1621~?)였다.<sup>10)</sup> 그는 <學文堂詩餘序>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 6) 陳子龍, <幽蘭草題詞>: 詞者, 樂府之衰變.(《詞籍序跋萃編》 506쪽에서 재인용)  
 7) 陳子龍, <三子詩餘序>: 詩與樂府同源.(《詞籍序跋萃編》 506쪽에서 재인용)  
 8) 宋徵璧, <倡和詩餘再序>: 詞者詩之餘乎? 予謂非詩之餘, 乃歌辭之變, 而殊其音節焉者也.  
 9) 拙稿, <雲間詞派詞學研究> 86-89쪽 참조.  
 10) 任繩隗는 陳維崧보다 생년이 앞설 뿐만 아니라, 그의 <學文堂詩餘序>는 康熙 6년(1667) 경에 쓴 것으로 康熙 10년경으로 추정되는 陳維崧의 <今詞苑序>의

또 이르기를 “사는 시의 나머지로, 덕이 높고 큰 재주를 가진 사람이 말하지 않은 것이다. 그런 까닭에 六朝의 綺靡 柔曼이 거의 詞苑의 남상이 된다. 당으로부터 문장은 세 번 변하였다. 연국공(唐 張說), 허국공(唐 蘇頲), 이백, 두보 등의 제 군자는 변하여 더욱 위로 올라가 마침내 그 물결을 막아 시를 지었다. 송인에게는 시가 없었다. 구양수, 소식, 황정건, 진관 같은 대가들은 힘껏 초당 성당을 따라갈 수 없어서 음탕하고 자잘한 소리가 많아졌고 변하여서는 더욱 아래로 내려가 마침내 그 흐름을 타고서 사를 지었다”라고 한다. 이것은 문장의 風氣에 입각하여 말한 것이다. 혹자는 또 구양수가 사단의 영수로 이름이 낮지만 당시 사람들은 그가 여성 친척과 사를 주고받아 크게 清流之士들의 박대를 받았다고 비방하였으며, 晏殊는 천성 연간의 현명한 재상이었지만 소사를 짓는다는 것으로 해서 비난을 불러왔다고 하였다. 이는 立德과 立言에 견주어 경중을 달리한 것이다. (이러한 견해들은) ‘나머지’라는 것으로 저울질한 것으로 요컨대 모두가 비루한 학자의 논의일 뿐이다. 《삼백편》이 <卿雲歌><sup>11)</sup>를 계승하지 않은 뒤로 <이소> 등의 초가는 <관저><麟之趾> 등의 작품을 따를 필요가 없었다. 이를 계승한다면 周詩를 위우는 사람이 어찌 <대풍가><천마가>를 작게 보겠으며 漢魏를 높이 받드는 이가 어찌 開府 庾信과 參軍 鮑照를 제쳐두겠는가? 대저 《시경》이 <이소>가 되고, <이소>가 악부가 되고, 악부가 장단가가 되고, 오칠언 고시가 되고, 율시가 되고, 절구가 되고, 시여가 되기에 이르렀다. 이것은 바로 고인이 구비하지 못한 것을 보충한 것이니 사가 시보다 열등한 것이라 말할 수는 없는 것이다. 두원개(晉 杜預) 장무선(晉 張華) 이문요(唐 李德裕) 문신국(宋 文天祥) 같은 이들은 모두 將相에 출입하고 군사일로 바쁘게 지내면서도 發憤하여 저술을 하여 오늘날까지 밝게 빛나고 있으니 재상된 자들이 책을 버려두고 누워서 대들보만 바라보고 있는 것을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 따라서 이 ‘나머지’라는 견해는 결단코 비루한 학자의 논의라는 것은 의심할 바가 없다.<sup>12)</sup>

저작연대보다 앞선다.(陳水雲, 《清代前中期詞學思想》 114쪽 참조.)

11) 舜임금이禹임금에게 禪位할 때 百官과 함께 부른 노래.

12) 又謂“詞者詩之餘也, 大雅所不道也. 故六代之綺靡柔曼, 幾爲詞苑濫觴. 自唐文三變, 燕許李杜諸君子, 變而愈上, 遂障其瀾而爲詩. 宋人無詩, 大家如歐蘇黃秦, 不能力追初唐, 多淫哇細響, 變而愈下, 遂泛其流而爲詞”. 此主乎文章風會言之也. 或又以永叔名冠詞壇, 當時誇其與女戚贈答, 大爲清流所薄; 晏元獻天聖間賢輔, 乃至以作小詞致譏. 此較乎立德與立言重輕之異也. 以餘衡之, 要皆賢儒之論

이 글의 핵심은 사는 “바로 고인이 구비하지 못한 것을 보충한 것이니 사가 시보다 열등한 것이라 말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그는 ‘보충’이란 각도에서 출발하여 ‘詩餘’의 ‘餘’를 설명하고 사체의 존송을 시도하였다. 사는 이전의 여타 문학 양식에서 부족했던 서정기능의 결함을 보충해 줄 수 있어서 작가의 감정과 뜻을 표현해내는 데 필요한 여러 요구를 만족시킨다. 그는 장군 재상을 지낸 사람들도 발분하여 저술하였다는 것을 증거로 열거하면서 사가 덕이 높고 큰 재주를 가진 사람이 말하지 않는 것이라는 비루한 학자들의 견해에 반박하였다. 또한 그는 “《시경》이 <이소>가 되고, <이소>가 악부가 되고, 악부가 장단가가 되고, 오칠언 고시가 되고, 율시가 되고, 절구가 되고, 시여가 되기에 이르렀다”고 하면서 중국 시가가 그 양식을 달리하면서 변화해온 이유가 이전 양식의 결함을 보충하려는 데서 비롯된 것이며 결코 답습이 아니라는 것을 밝혀내었다. 즉 사는 가볍게 대할 수 없으며 그 어느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나름대로의 존재가치가 있음을 천명한 것이다.

그러나 陽羨詞派 존재설을 대표하는 것은 陽羨詞派 이론의 강령이라 할 수 있는 陳維崧의 <今詞苑序><sup>13)</sup>이다.

사람들이 혹시 오늘날 재능 있는 선비가 지은 글이 사이사이 서릉이나 유신의 변려체와 닮아 있음을 보면 곧 “이는 제왕 어린애의 말일 뿐이다”라고 말하고 내던지고는 보지 않는데 이러한 견해를 나는 매우 이상하게 생각한다. 또 대대로 시 짓는 사람이 번번이 사를 박대하여 짓지 않은 것

耳。自三百篇未嘗襲卿雲糾縵之歌，離騷楚些不必蹈關雎麟趾之什。嗣是而誦周詩者，豈見少乎大風天馬也，推漢魏者寧皮置乎開府參軍也？夫詩之爲騷，騷之爲樂府，樂府之爲長短歌，爲五七言古，爲律，爲絕，而至于爲詩餘，此正補古人之所未備也，而不得謂詞劣于詩也。若杜元凱張茂先李文饒文信國諸人，皆出入將相，倥傯軍旅，而斐然作述，于今爲昭，安見爲宰相者乃至廢書而仰屋哉？此餘決其爲豎儒之論蓋無疑也。(《直木齋集》 권11)

- 13) 《今詞苑》은 陳維崧 吳本嵩 吳逢原 潘眉가 청 초기 작가의 사를 선집한 것이다. 모두 3권이며 청초 작가 132명의 460여수가 수록되어 있다. 선집자 각각의 서와 康熙 10년(1671)에 쓴 徐喈鳳의 서가 실려 있다.

을 보고서 “사를 지으면 시의 격을 떨어뜨리게 된다”고 말하고, 혹시라도 사 짓기를 강권하면 머리와 눈이 모두 시뻘게지는데 이런 견해도 또한 매우 이상하게 생각한다. 이런 사람들이 또 뭘 알겠는가! 사람들은 또한 유신의 <애강남부>나 서릉이 하북에서 지은 여러 편지글들이 <<장자><이소>를 부리고 <<좌전><국어>에 출입하여 바로 이보다 앞선 사마천이나 반고의 여러 역사서에 조금도 뒤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또 동파나 가현이 지은 장조의 사들이 또 두보의 가행이나 한대 서경의 악부처럼 뛰어나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

하늘이 인재를 내는 것이 끝이 없거니와, 문장의 체격 역시 끝이 없다. 예부터 지금까지 유협, 완효서 및 마귀, 정협제 같은 제가가 순서대로 늘어 놓아 기재한 문체는 그 대략을 조심스럽게 분류한 것일 뿐이니 문장을 쓰는 까닭은 이 사이에 있지 아니하다. 훌륭한 글은 본디 조화와 상관이 있거니와, 저급하여 터무니없고 조리 없는 말 또한 精深하다고 스스로를 일컫는다. 요컨대, 동굴에 숨거나 험한 데로 나감으로써 그 생각을 단련하고, 바다처럼 포용하고 땅처럼 깊어짐으로써 그 기개를 넓히고, 사물의 신묘함을 궁구하고 사물의 조화를 이해함으로써 그 변화를 관찰하고, 재주를 다하여 깊이 생각함으로써 그 변통을 이해하여, 경전이 되고 역사가 되었으며, 시라고 하고 사라고 하는 것이다. 문을 닫고 수레를 만들었어도 동일한 규격에 따라 만들어 크기가 다른 바퀴가 나오지 않은 것과 같다.

지금 사를 짓는 것을 하찮게 여기는 사람은 물론이거니와 사 짓기를 배우는 사람도 다시 <<화간집>을 지극히 높이고 <<蘭畹曲會>><sup>14)</sup>을 배워 香弱을 자랑하며 본가로 삼고, 淸眞을 본색으로 여기고 있는데, 神瞽<sup>15)</sup>는 소리를 살피 鄭나라와 衛나라의 음탕한 음악이라고 배척할 것이다. 심지어 어떤 경우는 鑿弄(잡극)의 속된 가사를 규방 여인이 익히기까지 하니, 그 소리가 젖은 북 같고 빛깔은 꺼진 채와 같다. 이런 것은 바로 농담과 은어로 아마도 詞曲이 시작되면서 걱정했던 것일 것이다. 두기<sup>16)</sup>, 좌전<sup>17)</sup>도 장차 사연과 같은 뛰어난 음악가들에 의해 언급되지 않으면 여러 세대를 거치면서 없어지는 법이니 오래도록 이렇게 되면 언제 끝이 나겠는가? 明代

14) 북송 孔夷가 편찬한 당오대사와 북송사의 선집이다.

15) 上古시대의 樂官으로 天道를 알 수 있는 사람을 가리킨다.

16) 杜夔는 三國 魏 河南人으로 음률에 정통하였다.

17) 左傳(馬+眞)은 三國 魏人으로 음악에 정통하였다. 左願이라고도 쓴다.

사의 흐름 가운데 바로 伯溫, 用修, 元美, 徵中 같은 이들도 이런 폐단을 벗어나지 못하였으니 나머지는 어떤지 알 수가 있으리라. 나와 마을의 두 뒯선생과 潘선생이 이를 슬퍼하여 이 선집을 만들었다.

아이! 흥도<sup>18)</sup>의 값이 떨어지고 갑장<sup>19)</sup>의 책이 없어지자 아무도 서진의 역사서를 읽지 않고 남조 양나라의 문무를 묻는 이가 없었다. 문장의 흐름의 끝은 계산에 정통한 사람이라도 추측하기 어렵거니와, 바로 사와 같은 것은 여분의 문체로 여겨지고 있어서 곳곳에서 편집이 이루어지면서도 主旨나 體例, 大旨의 표현은 비워둔 채 짓지 않는다. 겨우 漆園(장자)의 ‘말은 말이 아니다’라는 담론이나 모방하고 공자가 사물의 명실이 부합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탄식한 것에 연민을 느끼고 있다. 다만 문장의 일만이 아니니 마음에 걱정이 되는 것이다. 그런즉 나와 두 오선생, 반선생이 다만 사를 가려 뽑는 것일 뿐이겠는가? 사를 가려 뽑는 것은 사를 보존하는 것이요, 그것은 바로 경서를 보존하고 역사를 보존하는 것이리라.<sup>20)</sup>

18) 鴻都是 漢代 책을 보관한 곳이다.

19) 甲帳은 한 무제가 만든 장막이다.

20) 客或見今才士所作文, 間類徐庾儷體, 輒曰: “此齊梁小兒語耳.” 擲不視. 是說也, 予大怪之. 又見世之作詩者, 輒薄詞不爲, 曰: “爲輒致損詩格.” 或強之, 頭目盡赤. 是說也, 則又大怪. 夫客又何知? 客亦未知開府哀江南一賦, 僕射在河北諸書, 奴僕莊騷, 出入左國; 卽前此史遷班椽諸史書, 未見禮先一飯; 而東坡稼軒諸長調又駸駸乎如杜甫之歌行, 西京之樂府也.

蓋天之生才不盡, 文章之體格亦不盡, 上下古今, 如劉勰阮孝緒以暨馬貴與鄭夾漈諸家所臚載文體, 僅部族其大略耳. 至所以爲文, 不在此間. 鴻文巨制, 固與造化相關, 下而譚語卮言, 亦以精深自命. 要之, 穴幽出險, 以厲其思; 海涵地負, 以博其氣; 窮神知化, 以觀其變; 竭才渺慮, 以會其通; 爲經爲史, 曰詩曰詞, 閉門造車, 諒無異轍也.

今之不屑爲詞者, 固無論, 其學爲詞者, 又復極意花間, 學步蘭畹, 矜香弱爲當家, 以清真爲本色, 神瞽審聲, 斥爲鄭衛, 甚或鑿弄俚詞, 閨襜冶習, 聲如濕皮, 色如死灰, 此則嘲諷隱度, 恐爲詞曲之濫觴所慮, 杜夔左禎(馬+眞), 將爲師涓所不道. 輾轉流失, 長此安窮? 勝國詞流, 卽伯溫用修元美徵仲諸家, 未離斯弊, 餘可識矣. 余與里中兩吳子潘子戚焉, 用爲是選.

嗟乎, 鴻都價賤, 甲帳書亡, 空讀西晉之陽秋, 莫問蕭梁之文武, 文章流極, 巧曆難推. 卽如詞之一道, 而餘分閏位, 所在成編, 義例凡將, 闕如不作. 僅效漆園馬非馬之談, 遑恤宣尼觚不觚之嘆. 非徒文事, 患在人心. 然則余與兩吳子潘子僅僅選詞云爾乎? 選詞所以存詞, 其卽所以存經存史也夫.(《陳迦陵文集》)

陳維崧은 詞를 小道, 小技로 보는 견해에 반대하여 직접적으로 반박하는 말을 하기도 하였는데<sup>21)</sup> 그것들은 모두 단편적인 언급에 그치고 말았다. 그러나 <금사원서>에서는 작심하고 다각적인 측면에서 당시 문인사회 일반의 소도관의 잘못을 지적하며 사에 대한 존체를 시도하고 있다.

먼저 그는 문체의 우열로 문학의 가치를 구분하려는 당시 문단의 잘못된 세태를 지적하였다. 유신과 서릉은 모두 남조에서 북조에 들어가 몸소 나라를 잃은 아픔을 경험한 사람들로서 그들이 지은 <애강남부>나 <在北齊與楊僕射書> 같은 것은 시대에 대한 느낌과 그에 따르는 작가의 슬픈 정서를 담아내고 있으니 역사적 가치가 충분하며, 이런 관점에서 볼 때 그것이 변려체로 쓰여졌다고 해서 《장자》<이소>《좌전》《국어》《사기》《한서》보다 못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나아가 소식과 신기질이 쓴 사는 현실사회를 반영하였다는 점에서 두보의 가행시나 한대 악부와 일맥상통하고 있으니 詞라는 擔體를 사용했다고 해서 그것의 문학적 가치가 손상되지는 않는다.

이어서 '하늘이 인재를 내는 것이 끝이 없고 문장의 체격 역시 다하지 않는다'고 하여 시대의 변화와 더불어 문체는 변화하여 왔고, 사체 역시 이런 문체 변화의 흐름 속에서 생겨난 문학 양식이라는 것을 추론해 내었다. 각종 문장의 체격이 모두 공동의 본질을 가지고 있고 영원히 변화하며 진화하는 흐름 가운데의 한 부분이라면 그것들은 모두 천연의 합리성과 필연성을 가지고 있을 것이니 문체 사이에는 어떤 高下나 貴賤, 大小의

21) <今詞選序>: 나는 본래 실의하여 한을 품은 사람이거니와, 사는 소도가 아니다.(僕本恨人, 詞非小道.)

<曹實庵詠物詞序>: 나는 매번 요즘 사람들이 사는 소도라고 헐뜯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다. 만약 걸작이 아니라면 누가 이 말의 잘못을 밝혀내겠는가?(僕每怪夫時人, 詞則呵爲小道. 儼非傑作, 疇雪斯言?)

《珂雪詞》의 <百字令·詠史>(三臺鼎峙)에 대한 평어: 사마천의 열전, 두보의 가행 사이에 이런 사를 놓아두면 누가 그것들보다 못하다고 하겠는가? 저들이 사 짓는 것을 小技로 여기는 것은 모두 하급선비가 파리처럼 남을 헐뜯는 소리일 뿐이다.(置此等詞于龍門列傳, 杜陵歌行間, 誰曰不如? 彼以填詞爲小技者, 皆下土蒼蠅聲耳.)

문제가 존재할 수 없다.<sup>22)</sup> 이런 주장은 문학 발생론적 각도에서 사체에 대한 차별 의식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효과가 있다.

또한 陳維崧은 창작의 관점에서 사에 대하여 그 체격을 높일 수 있는 표준을 제시하였다. 그것은 작가가 ‘생각을 단련하고’ ‘기개를 넓히고’ ‘변화를 관찰하고’ ‘변통을 이해하는’ 것이다. 이런 조건이 충족될 때 경전이 되고 역사서가 되고, 그에 상응하는 시나 사를 지을 수 있다고 하였다. 이렇게 사에 대하여 시 뿐만 아니라 경전이나 역사서를 쓰는 것과 동일한 창작의 표준을 제시함으로써 陳維崧은 사의 창작자로 하여금 사가 소도라는 심리상태에서 철저히 벗어나도록 하였다. 뿐만 아니라 사체에 대하여는 자체의 생명과 활력을 갖추어 문학적인 충실을 기하게 하고 넉넉하고 온전한 역량을 갖춘 새로운 형상으로 탈바꿈하게 함으로써 이제껏 가려져 있었던 소도 관념의 어두운 터널로부터 빠져나오게 하였다.

명대 이래 사학이 쇠퇴하고 사인들이 《화간》에서 길을 찾아 사의 내용은 香艷 일색이었고 풍격도 柔弱함으로 치우쳤다. 이러한 작사 경향은 명말 청초의 대변혁기의 시대 상황과는 부합하지 못하는 것이었다. 명대 사풍을 청산하고 새로운 사의 발전을 모색하기 위하여, 그리고 존재의식의 고양을 위하여 陳維崧은 대담하고도 파격적인 길을 제시하였다. 그것은 사를 경전과 역사와 동일시하는 것이었다. 경전은 중국 전통사회 유가들에 의해 최고의 평가를 받는 전적을 말한다. 또한 전통사회에서 역사는 경전과 나란한 지위에 있었다. 문학의 지위 특히 순수문학의 지위는 이에 비하면 훨씬 처진다. 역대 시인 가운데 두보 시만이 유일하게 역사 가치를 인정받아 詩史란 칭호를 받았을 뿐이다. 따라서 “사를 가려 뽑는 것은 사를 보존하는 것이요, 그것은 바로 경서를 보존하고 역사를 보존하는 것이라”는 선언은 당시로서는 충격적 발언이 아닐 수 없었다. 그러나 이는 그 어떤 이론보다도 더 확실하게 존재에 힘을 실어주었다.

사를 經史와 대등한 지위로 끌어올린 그의 주장은 일시적인 충동에 의

22) 方智范 外, 《中國詞學批評史》 207쪽 참조.

한 것은 아니었다. 실제 陳維崧의 사 창작 생애를 살펴보면 康熙 12년(1673)에서 康熙 16년(1677)까지 그는 오로지 사 창작에 집중하고 시는 거의 짓지 않았다.<sup>23)</sup> 시의 가치가 중시되던 사회에서 의도적으로 시 창작을 거부하고 사 창작에 온 힘을 기울였다는 것은 그가 얼마나 사의 가치를 높게 평가하였는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이다. 또한 사가 역사 가치를 가지기 위해서는 詞人이 동시대의 사회현실을 반영하여야 한다는 측면에서 보자면 이는 청초 명 유민의 사 창작에 대하여 새롭게 의미를 부여하려고<sup>24)</sup> 한 陳維崧의 치밀한 전략으로 볼 수도 있다.

사를 경사와 동일시하는 관점은 그가 쓴 여러 서문 및 사 평어에서도 나타난다. <任植齋詞序>에서 그는 “그런즉 이 사는 《金荃》의 아름다운 구절이기도 하며 또한 《東京夢華錄》의 다른 기록이기도 하다”<sup>25)</sup>라고 하였고 <董文友文集序>에서는 “저 ‘香奩’ ‘西昆’의 체로 문우를 지목하는 사람들이 어찌 우리 문우를 아는 사람들이겠는가? 난리를 만난 사람이 뜻을 기탁한 것이니 군자는 불만하다고 말할 것이다”<sup>26)</sup>라고 하였다. 또 曹貞吉의 <珂雪詞>에 보이는 陳維崧의 평어 가운데 <滿庭芳·和錫鬯李晉王墓作>에 대하여 “매번 《오대사》를 읽다가 <영관전>에 이르면 눈물이 흘러

23) 嚴迪昌의 <湖海樓詩集>에 대한 분석에 의하면 康熙 11년 4월에서 康熙 17년 8월 사이에 陳維崧이 지은 시는 康熙 15년 12수의 연작시와 康熙 16년에 지은 시 1수에 불과하다.(《陽羨詞派研究》 73쪽 참조.)

24) 명 유민의 사 창작에 대하여 이전에는 단지 사회사의 내용으로만 간주하고 그 가운데 담겨있는 이론적 의의는 소홀히 하였다. 陳維崧의 부친 陳貞慧는 晚明 사공자의 하나였으며, 명이 망한 뒤에 陳維崧은 장기간 사공자 중의 한사람인 冒襄의 水繪園 가운데서 기거하였다. 수회원은 바로 유민 및 그들의 자제를 받아들이고 비호했던 중요한 장소였다. 이러한 가정 배경과 개인 이력으로 인하여 그는 많은 명 유민의 생활과 사 창작상황에 대하여 비교적 잘 이해하고 있었다. 이리하여 그는 객관적으로 유민사의 창작을 총괄하고 아울러 그 의의를 제고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사가 역사적 가치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은 바로 명 유민의 사 창작에 대한 합리적 설명이라고 할 수 있다.(張宏生, <清初詞史觀念的確立與建構> 158쪽 참조.)

25) 然則斯詞也, 以爲金荃之麗句也, 抑亦夢華之別錄也.(《迦陵文集》 권2)

26) 彼夫以香奩西昆之體目文友者, 是豈知吾文友者乎? 離亂之人, 聊寓意焉. 君子謂可以觀矣.(《迦陵文集》 권2)

치마를 적시곤 하였는데 지금 이 사에서도 그러하다”<sup>27)</sup>라고 한 것이라든가, <百字令·詠史>(三臺鼎峙)에 대하여 “사마천의 열전, 두보의 가행 사이에 이런 사를 놓아두면 누가 그것들보다 못하다고 하겠는가?”<sup>28)</sup>라고 한 것이라든가, <望遠行·詠延陵季子劍>에 대하여 “투성 감자로 《오월춘추》를 붙어내었다”<sup>29)</sup>고 한 것 등은 모두 사를 역사적 가치 측면에서 평한 것들이다.

명말 청초의 문인 가운데는 사체를 경시하여 짓지 않는 사람이 많았거니와 한때 사로 이름을 날렸던 사람들 가운데도 사를 짓는 것이 시의 격을 손상시킬 것이라고 생각하여 사를 떠나 짓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젊은 나이에 廣陵詞壇을 이끌었던 王士禎은 揚州를 떠나 북경으로 돌아간 뒤로는 더 이상 사를 짓지 않았고, 《延露詞》 작자로 최고의 평가를 받았던 彭孫通도 王士禎과 다르지 않았다. 浙西詞派의 창시자인 朱彝尊은 한림원에 들어간 뒤로 “사는 연회석상에서 逸樂을 즐기므로써 태평세대를 노래하는 데 적당하다”고 하면서 사의 기능은 연회석상의 주흥을 돋우는 것이며 사의 존재가치는 태평성대의 구가수단이라는 데 있다고 보았고<sup>30)</sup> 만년에는 오로지 經義 연구에만 집중하고 사는 짓지 않았다. 이런 사회적 분위기에서 평생을 사 창작에 매진하면서 사체의 지위를 經史로까지 끌어올리려 했던 陳維崧의 존재에 대한 공은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고 하겠다.

### III. 風格論

송대 이후로 사에 대하여 ‘本色’ 또는 ‘別是一家’의 주장이 계속되어 오

27) 每讀五代史, 至伶官傳, 輒爲涕下沾裳也. 今于此詞亦然.(曹貞吉, 《珂雪詞》 36쪽)

28) 置此等詞于龍門列傳, 杜陵歌行間, 誰曰不如?(상계서 52쪽)

29) 偷聲減字, 吹出吳越春秋.(상계서 79쪽)

30) 줄고, <朱彝尊詞論研究> 151쪽 참조.

면서 사단에서는 婉約 위주의 사를 정격으로 보려는 움직임이 대세를 이루었다. 명말 雲間詞派 역시 남당 북송의 완약 사풍을 높이 받들었고 이러한 경향은 청초에도 그대로 답습되었다.<sup>31)</sup> 한편 청초 사단에서는 사에 대한 인식이 심화되면서 그와 더불어 사의 시대 풍격에 대한 논의가 점차 활발해지기 시작하였다. 아울러 각각의 관점에 따라서 전대의 특정 사풍을 모방하려는 풍조가 만연하였다. 陽羨詞派는 이런 당시 사단의 풍조에 대하여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하였다. 陳維崧은 <賀新涼·題曹實庵珂雪詞>에서

얼마나 많은 문단에서 문장의 수식에 대해 논하면서 호매한 소식이나 細膩한 유영에게서 저본을 찾고 있는가? 나는 크게 비웃거니와 개구리 울음소리에 견줄만하다.<sup>32)</sup>

라고 하였고, 蔣景祁는 <刻瑤華集述>에서

지금 사인들은 경솔하게 남송과 북송을 나누어 두 마루로 삼고, 갈라선 자들이 쉽게 대립각을 세우기에 이른다. 궁구해보건대 그 심오한 곳에 이르면 길은 다르나 모두 한 곳으로 돌아가지 않음이 거의 없는 것이다. 이는 曲을 논함에 또 南과 浙로 나누는 것과 같으니 나는 이 모두가 知音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sup>33)</sup>

라고 하여 역시로 문호를 나누는 관점에 대하여 반대하였다.

陽羨詞派는 사의 풍격 유파에 대하여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을 경계하였는데 그 대표적 견해는 徐喈鳳의 <<詞證>>에 보인다.

31) 줄고, <雲間詞派詞學研究> 91쪽 참조

32) 多少詞場談文藻, 向豪蘇膩柳尋藍本. 吾大笑, 比蛙黽.(《陳維崧選集》 186쪽)

33) 今詞家率分南北宋爲兩宗, 岐趨者易至角立. 究之臻其堂奧, 鮮不殊途同軌也. 猶論曲亦分南浙, 吾皆不謂之知音.(嚴迪昌,《陽羨詞派研究》 105쪽에서 재인용.)

魏塘 曹學士<sup>34)</sup>가 지은 <峽流詞序>에 이르기를 “사체가 미인과 같다면 시는 壯士이다. 사가 봄꽃과 같다면 시는 가을 열매이다. 사가 싱싱한 복숭아와 무성한 살구와 같다면 시는 굳센 소나무와 곧은 잣나무이다”라고 하였다. 보기 드문 비유로 뜻이 아주 명쾌하다. 그러나 사 가운데에는 또한 장사가 있으니 소식, 신기질이 그렇다. 또한 가을 열매가 있으니 황정견, 육유가 그렇다. 또한 굳센 소나무와 곧은 잣나무가 있으니 岳飛, 文天祥이 그렇다. 사를 선집하는 사람은 이 두 가지를 다 가려 뽑아야 규모나 내용이 갖추어진 모습이 된다. 오로지 아름답고 화려한 것만을 높인다면 어찌 굳센 소나무와 곧은 잣나무가 오히려 싱싱한 복숭아와 무성한 살구보다 못하다는 것이 아니겠는가?<sup>35)</sup>

曹爾堪이 말한 사를 미인, 봄꽃, 싱싱한 복숭아나 무성한 살구에 비유하고 시를 장사, 가을 열매, 굳센 소나무나 곧은 잣나무에 비유한 것은 明 李東琪가 말한 ‘詩莊詞媚’<sup>36)</sup>의 개념을 형상적으로 풀어 설명한 것이다. 이 ‘詩莊詞媚’는 시와 사의 기본적인 體格의 차이를 설명한다고 볼 수 있지만 이를 정형화하여 시와 사의 경계를 확연하게 구분할 수는 없다. 徐喈鳳은 사에는 시와 같이 봄꽃도 있고 가을 열매도 있으니 고정 관념에 매여서는 안 된다고 보았다. 그리하여 사를 선집할 때 ‘싱싱한 복숭아와 무성한 살구’ 뿐만 아니라 ‘굳센 소나무와 곧은 잣나무’도 다 함께 가려 뽑는 태도를 취할 것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두 가지를 골고루 가려 뽑는다는 것이 둘에 대한 구분을 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니다. “오로지 아름답고 화려한 것만을 높인다면 어찌 굳센 소나무와 곧은 잣나무가 오히려 싱싱한 복숭아와 무성한 살구보다 못하다는 것이 아니겠는가?”라는 말에서 분명하게

34) 曹爾堪(1617~1679)으로 자는 子顧, 호는 顧庵이다.

35) 魏塘曹學士作<峽流詞序>云:“詞之爲體如美人, 而詩則壯士也; 如春華, 而詩則秋實也; 如天桃繁杏, 而詩則勁松貞柏也。”罕譬最爲明快. 然詞中亦有壯士, 蘇辛也; 亦有秋實, 黃陸也; 亦有勁松貞柏, 岳鵬學文文山也. 選詞者兼收并采, 斯爲大觀. 若專尙柔媚綺靡, 豈勁松貞柏反不如天桃繁杏乎?(《陽羨詞派研究》 106쪽에서 재인용)

36) 詩莊詞媚, 其體元別. 然不得因媚輒寫入淫褻一路. 媚中仍存莊意, 風雅庶幾不墜.(王又華, <古今詞論>, 《詞話叢編》 606쪽)

알 수 있는 것은 婉約 위주의 사풍 선호에 대한 편파성을 반대한다는 것과 사풍에 주된 것과 부차적인 것이 존재한다고 인정하고 있다는 점이다.<sup>37)</sup>

사가 비록 소도이지만 또한 각각 그 성정을 드러낸다. 성정이 호방한 사람이 억지로 완약한 말을 쓴다고 해도 결국 호기는 사라지지 않는다. 성정이 완약한 사람이 억지로 호방한 말을 써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완약한 자태가 스스로 드러난다. 그런 까닭에 완약이 본디 본색이지만 호방 역시 본색이 아닌 적이 없었다. 後山이 동파사를 평하여 “교방 뇌대사가 춤추는 것과 같으니 비록 천하의 공교함을 다하였지만 요컨대 본색은 아니다”라고 하였는데 이 말은 성정을 떠나 말한 것이니 어찌 공평한 논의이겠는가?<sup>38)</sup>

徐喈鳳은 서정의 도구인 사가 性情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일반론에서 출발하여 소식사를 본색이 아니라고 한 陳師道の 견해를 반박하였다. “완약이 본디 본색이지만 호방 역시 본색이 아닌 적이 없다”는 말에 깔려 있는 전제는 사의 本色論의 기준에 성정도 고려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전통적으로 내려온 사의 본색론은 음률의 조화를 기준으로 삼았는데 徐喈鳳을 포함한 陽羨詞派는 작가 성정의 진실성의 여부 즉 사의 서정의 기능도 본색의 기준에 포함시켰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완약 위주의 사풍만이 더 이상 사의 본색이라고 고집할 수는 없다. 사의 풍격이란 작가의 성정이 어떠한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고 따라서 완약이나 호방이니 하는 어느 한 가지 풍격에 대한 집착은 옳은 것이 아니다. 그보다는 작가 성정의 진실성 혹은 작가의 뜻이 어떻게 구현되었는가 하는 점을 살펴야 한다. 성정의 문제와 관련하여 陳維崧은 <曹實庵詠物詞序>에서 다음과 같이

37) 方智范 外, 《中國詞學批評史》 215쪽 참조.

38) 《詞證》: 詞雖小道亦各見其性情. 性情豪放者強作婉約語, 畢竟豪氣未除. 性情婉約者強作豪放語, 不覺婉態自露. 故婉約固是本色, 豪放亦未嘗非本色也. 後山評東坡詞“如教坊雷大使舞, 雖極天下之工, 要非本色”, 此離乎性情以爲言, 豈是平論.(《陽羨詞派研究》 106쪽에서 재인용)

말하였다.

하늘이 情을 가지고 있다면 하늘이 어찌 늙지 않겠는가? 돌에게 恨이 없다면 돌이 어찌 말할 수 있겠는가?<sup>39)</sup> …… 거슬러 올라가 보면 천지가 시작된 이래 대대로 공평하지 못한 일이 있었다. …… 어떤 것은 하마릉 위에서 노년의 여인이 한담하는 것이고, 어떤 것은 관작루 가의 前朝 遺老의 밤 이야기이고, 어떤 것은 武擔山<sup>40)</sup>을 지나던 나그네가 일찍이 成都에서 石鏡을 본 것이고, 어떤 것은 주질(蓋屋)<sup>현41)</sup> 사람이 우연히 渭水에서 동쟁반을 얻은 것으로, 눈으로 본 것이 아니면 직접 들은 것이다. 일들이 모두 속에 축적되어 기이한 형상을 이루면, 흥이 격한 출렁임으로부터 나와 감격하게 된다. 평상을 두드리고 크게 소리 지르니 교통과 이무기가 가슴속에서 꿈틀거리고, 책상에 기대어 옆으로 글로 써가니 올챙이가 손목 아래에서 빙빙 맴돈다. 어느 누가 울적해 하면서 길이 칠언율시 사이에 매일 수 있겠는가? 이러한 망망함을 마주하면 잠시 감자 투성 아래에서 방랑하는 것이다.<sup>42)</sup>

여기에서 말하는 ‘흥이 격한 출렁임으로부터 나와 감격하게 된다’ ‘교통과 이무기가 가슴속에서 꿈틀거리다’ ‘올챙이가 손목 아래에서 빙빙 맴돈다’ 등은 사인이 외부 사물의 자극을 받아 격발된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그것을 글로 써내는 창작과정을 형상적으로 묘사한 것이다. 사 창작과정에서 陳維崧이 긍정한 것은 ‘눈으로 보고’ ‘몸소 들은 것’에서 촉발된 감정의 출렁임이다. 그 중에서도 대대로 있었던 불공평 즉 망국에 대한 한, 흥망

39) 고대 사람들은 귀신이 돌에 빙의하여 말을 한다고 보았다.

40) 산 이름으로 四川省 成都市 서북쪽에 위치하고 있다.

41) 현 이름으로 陝西省 長安縣 서쪽 渭水 가에 있다.

42) 天若有情，天寧不老；石如無恨，石豈能言。…… 溯夫皇始以來，代有不平之事。…… 或蝦蟆陵上，暮年紅袖所閑談；或鶴雀樓邊，故老白頭之夜話。或武擔過客，曾看石鏡于成都；或蓋屋居民，偶得銅盤于渭水。苟非目擊，卽屬親聞。事皆磊砢以魁奇，興自顛狂而感激。槌床絕叫，蛟螭夭矯于胸中；踞案橫書，蝌蚪盤旋于腕下。誰能鬱鬱，長束縛于七言四韻之間？對此茫茫，姑放浪于減字偷聲之下。(《陳檢討四六》 권9)

에 대한 감정이다. 사는 이렇게 불공평하고 원망스런 일들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시보다 훨씬 뛰어난 예술적 역량을 갖고 있음을 그는 지적하였다. “어느 누가 울적해 하면서 길이 칠언율시 사이에 매일 수 있겠는가? 이러한 망망함을 마주하면 잠시 감자 투성 아래에서 방랑하는 것이다.” 불공평에서 비롯된 원망의 감정, 직접 목격하고 귀로 들은 사건에 의해 격발된 감정을 써낸 사의 풍격은 婉約의 범주에 머무를 수 없다. 이 때문에 陽羨詞派는 호방 사풍에 대하여 호의적인 입장이었다. 당시 사단의 ‘호매한 소식이나 細膩한 유영에게서 저분을 찾고 있던’ 이들에 대하여 개구리 울음 소리 같다고 비웃었던 陳維崧이 힘있고 기세가 넘치면서 雄渾하고 蒼茫한 사풍을 선호한 것도 여기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그는 동시대 사인을 평하면서 호방한 사풍에 대한 선호의 감정을 숨기지 않았으니, <賀新涼·題曹實庵珂雪詞>에서 曹貞吉의 사에 대하여

양주의 술을 잔에 가득 따르고 아름다운 사를 사랑하여 《珂雪詞》를 엮었는데 雄大하고 심오하며 처량하고 渾然하다. 만 마리 말이 일제히 병 어리가 된 채 蒲牢<sup>43)</sup>가 포효하고, 백곡 크기의 이무기가 꿈틀대는 듯하다. 헤아려보니 나비모양의 拍板, 찢꼬리 울음소리 내는 생활과 쉬이기를 그만 두었다. …… 虞卿<sup>44)</sup>처럼 뜻을 얻지 못해 고생하고, 한비처럼 홀로 고결하여 분개하였거니와, 귀가 달아오르고 술잔이 다해 가면 한없는 감정에 젖어 변방 기러기 돌아가는 것을 끝까지 바라보았다.<sup>45)</sup>

고 평하였고, <賀新郎·奉贈蘧庵先生>에서는 史可程의 사에 대하여

사의 신선을 아는가? 옛날의 구양수 소식 신기질 육유를 다시 살아나게

43) 蒲牢는 傳說 속의 동물로 해변에 생활한다고 한다. 울부짖는 소리가 매우 커서 옛날에는 종에 蒲牢의 형상을 주조해 넣었다고 한다.

44) 전국시대의 유세가.

45) 滿酌涼州醞. 愛佳詞, 一編珂雪, 雄深蒼渾. 萬馬齊喑蒲牢吼, 百斛蛟螭困蠢. 算蝶拍鶯簧休混. …… 虞卿坎坷, 韓非孤憤. 耳熱杯闌無限感, 目送塞鴻歸盡.(《陳維崧選集》 186쪽)

한다면 선생에게 축수할 것이다. 꽃에 미혹되거나 술에 괴로워하지 않고, 호기가 높이 솟구쳐 우뚝 홀로 뛰어나니, 요컨대 노성한 필치가 온갖 꽃을 일제히 수놓은 듯하다. 비파를 던져 부수어 얼굴을 깨뜨리며 향기로운 사는 그대 악공들의 손을 육보이고, 나머지 사람들이 헛되이 문사를 수식한 것을 비웃는다. …… 나에게 동인의 천 줄기 눈물이 있으니, 펄쩍 사자가 뛰어오르며 우는 듯하다.<sup>46)</sup>

고 하였다. 이런 평가는 曹貞吉과 사가정의 호방한 사풍에 대한 긍정이면서 한편으로는 陳維崧 자신의 사의 성취에 대한 자부심의 표현이자 그 본인의 사 창작에 있어서의 예술적 지향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청대 사단에 있어서 陳維崧은 호방사풍을 주도한 것으로 이해되기도 한다. 그러나 그는 호방사풍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이기는 했지만 그것을 宗風으로 삼아 고집하지 않았다. 그는 사의 풍격이 작가의 성정과 경험 등 주관적이고 객관적인 여러 조건의 차이로 인하여 달라질 수 있음을 인정하고 어느 하나의 사풍에 얽매이는 태도를 반대하였다. 그리고 실제 사 창작에 있어서 그는 자신의 이론을 실천적으로 증명해보였다. 康熙 연간의 高佑貳가 내린 陳維崧 사의 평가는 이 점을 밝혀놓은 것이다. “송 명가의 사는 가장 번성하여 체격이 하나가 아니었다. 소식 신기질의 雄放함과 豪宕함, 진관 유영의 嫵媚하고 風流스러운은 판연히 길을 달리하여 각각 그 묘함을 다하였다. 그리고 강기 장염 같은 이들은 冲澹과 秀潔로 사의 中正을 얻었다. 其年 선생에 이르면 중횡으로 변화하여 모든 아름다움에 다 도달하였고 ‘동비파에 철관’ 같은 소식의 사풍이나 ‘새벽바람에 지는 달’ 같은 유영의 사풍에도 모두 뛰어났다. 그의 새롭고 특이한 표현들은 왕왕 고인에 의해 말해지지 않은 것인데 이것은 詞學의 절창이다.”<sup>47)</sup> 이로 볼

46) 識得詞仙否? 起從前, 歐蘇辛陸, 爲先生壽. 不是花顛和酒惱, 豪氣軒然獨有. 要老筆萬花齊繡. 擲碎琵琶令破面, 好香詞汚汝諸伶手. 笑餘子, 徒雕鏤. …… 我有銅人千行淚, 撲地獅兒騰吼(《湖海樓詞集》 권27)

47) <湖海樓詞序>: 宋名家詞最盛, 體非一格. 蘇辛之雄放豪宕, 秦柳之嫵媚風流, 判然分途, 各極其妙. 而姜白石張叔夏輩以冲澹秀潔得詞之中正. 至其年先生縱橫變化, 無美不臻, 銅琶鐵板, 殘月曉風, 兼長並擅, 其新警處, 往往爲古人所不經道,

때 문학사에서 陳維崧과 陽羨派를 가리켜 ‘복송을 표방하는 陳維崧 등의 호방한 陽羨派’라고 서술한 것은 陳維崧과 陽羨派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적절치 못한 표현이라고 하겠다.

#### IV. 聲律論

詞는 음악문에 즉 燕樂의 악곡 가사로 출발하여 오랜 발전 과정 속에서 엄격한 규율을 만들어내었다. 가사로서의 사는 무엇보다 음률에 맞아야 한다. 사의 음률은 樂律, 宮調, 曲調譜式, 叶樂 방식, 가창 방법 등의 음악상의 제 문제를 포함한다. 또한 사는 문학 양식으로서의 格律을 따져야 한다. 사의 격률은 詞調의 字數, 句式, 平仄 등 體式과 작법상의 문제를 포함한다.<sup>48)</sup> 사에 있어서의 음률과 격률을 포괄하는 개념이 聲律이다. 성률의 문제는 사가 노래로 불리던 때나 사의 음악이 실진된 이후 詞譜에 의거해 填詞를 하던 때나 늘 작사가들의 골칫거리였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성률의 문제로부터 자유로웠던 사 작가는 없었다.

원 이후 詞가 쇠퇴의 길을 걷게 된 데는 사 음악의 失傳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명대에 와서는 상대적으로 曲이 성행하였고 사의 성률에 대한 지식이 적어서 당시 유행하는 曲律에 의거해 작사함으로써 명확치 않은 성률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경향이 나타났다. 이런 상황에 대하여 陳維崧은 <금사원서>에서 “심지어 어떤 경우는 爨弄(잡극)의 속된 가사를 규방 여인이 익히기까지 하니, 그 소리는 젖은 북 같고 빛같은 꺼진 재와 같다”<sup>49)</sup>고 말하였다. ‘그 소리는 젖은 북 같다’고 한 것은 성률 문제로부터 명대 사단의 문제점을 적시한 것이다. 또한 萬樹(1630?~1688)는 <詞律自敍>에서 다음과 같이 당시 사단의 현실과 문제점을 진단하였다.

是爲詞學中絕唱。(《湖海樓詞集》)

48) 馬興榮 외 주편, 《中國詞學大辭典》 8쪽 참조.

49) 甚或爨弄俚詞, 閨檐冶習, 聲如濕皮, 色如死灰.

다만 입에 순통하는 것을 좇기만 하면 일가로 이름을 날릴 수 있었고  
이리하여 저술이 많아지게 되었거니와 지금에 이르러서는 사풍이 성할수록  
詞學은 더욱 쇠하게 되었다.<sup>50)</sup>

‘입에 순통하는 것을 좇는다’는 것은 곡률에 의거하여 작사하던 명대 사단의 폐단에 대하여 지적한 것이다. 청대에 들어와서도 이런 폐단이 계속 되었으므로 사짓는 풍조가 번성할수록 詞學은 반대로 쇠하게 될 운명에 처한 것이다. 따라서 사의 성률의 회복은 청대 사학 흥성과 직결되는 문제였다. 陳維崧과 萬樹는 康熙 7년(1668)을 전후해서 이 문제를 진지하게 검토한 바 있다. 이 일에 대하여 萬樹는 <詞律自敘>에서 “戊申(1668) 己酉(1669) 사이에 바로 진기년과 북경의 객사에서 이 뜻을 논의하였다”<sup>51)</sup>고 밝히고 있다.

康熙 26년(1687)에 편집된 萬樹의 <詞律>은 陳維崧을 포함한 陽羨詞派의 이러한 성률 회복의 필요성에 대한 깊은 문제의식에서 비롯된 사학상의 성취라고 하겠다. 이는 또한 陽羨詞派가 이룬 사학상의 가장 큰 공헌이라고 할 수 있다.

<詞律>은 唐, 宋, 金, 元의 詞 660調, 1,180여體를 수록하고 있다. 각 詞調는 字數에 따라 순서대로 배열되어 있다. 배열된 사조에는 또한 각각의 變調<sup>52)</sup>, 犯調<sup>53)</sup>, 合調<sup>54)</sup>를 덧붙여 나열하였고, 令, 引, 近, 慢 등 음악상 유사한 사조들을 병렬시켰다. 萬樹는 <詞律>에서 각 사조마다 句讀, 平仄, 協韻 등에 대하여 注를 달아 밝힘으로써 당시 유전되던 詞譜의 잘못을 바로잡았다. 아울러 그는 사를 小令, 中調, 慢調로 나누는 것이 아무 근거가 없다는 것, 사를 억지로 第一, 第二 등의 체로 나누는 것이 합리적

50) 但從順口, 便可名家, 于是篇牘汗牛, 棗梨充棟, 至今日而詞風愈盛, 詞學愈衰矣.  
(萬樹, <詞律>)

51) 戊申己酉之間即與陳檢討其年論此志于金臺客邸.(상계서)

52) ‘변조’란 사조의 添聲, 攤破, 偷聲, 減字 등을 말한다.

53) ‘범조’란 句法이 다른 사조를 말한다.

54) ‘합조’란 동일한 사조이지만 이름이 다르거나 體가 다른 것을 말한다.

이지 못하다는 것, 사에는 調는 같으나 이름은 다른 것과 조는 다르지만 이름이 같은 것이 있다는 것, 사의 句法에 있어서 五言에 上二下三과 上一下四가 있고, 七言에 上三下四와 上四下三의 구별이 있다는 것, 사의 四聲 가운데 上聲과 入聲이 平聲을 대신할 때가 있다는 것, 사의 轉折跌宕 한 곳에서는 去聲字를 많이 쓴다는 것 등등 성률 방면의 새로운 견해를 다수 제시하였다. 이러한 《詞律》의 성률상의 공헌에 대하여 《四庫全書總目提要》에서는 “唐宋이래 음악에 따라 곡을 짓는 법이 이미 실전되었는데 萬樹와 같은 경우 참으로 열 가운데 여덟아홉은 얻었다”<sup>55)</sup>고 높게 평가하였다.

萬樹는 사의 성률을 중시하였지만 그렇다고 성률에 얽매어 性情을 소홀히 하지는 않았다. 그는 曹亮武 《南耕詞》 권4의 <跋>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사는 오늘날에 이르러 지극히 성행하고 있다고 여겨지는데 나만은 그렇지 않다고 말하겠다. 어째서인가? 옛날 사가 노래로 불리어질 수 있었던 까닭에 대하여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말하지 않기 때문이다. 사는 음악과 어울리는데 그 법은 매우 엄격하여 사 짓는 사람들은 왕왕 거기에 구애되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었다. 송대의 柳永, 周邦彥 같은 이들이 우뚝 填詞의 우두머리가 되었지만 그들의 뜻은 오로지 노래 부를 수 있고 성률이 잘 어울리게 하는 데에 있었으므로 비록 어떤 사람이 그들의 사를 속되다 말하여도 개의치 않았다. 이것은 참으로 잘못된 것이다. 오늘날 재주 있는 자들은 대부분 성률을 빌어 그 말을 정교하게 한다. 그런데 사람들은 더욱 그것을 숭상하고 점점 더 서로서로 모방을 한다. 처음에는 개미구멍 같다가 마침내 제방을 무너뜨리는 상황에 이르게 될 것이니 사에 대하여 물어 볼 수가 없을 것이다.<sup>56)</sup>

55) 唐宋以來, 倚聲度曲之法, 久已失傳, 如樹者固已十得八九矣.(《四庫全書總目提要》集部 詞曲類二, 《合印四庫全書總目提要及四庫未收書目禁燬書目》 4469 쪽)

56) 詞至今日爲極盛矣, 余獨曰未也. 何也? 以古詞之所以可歌者多不講也. 詞與音比, 其法甚嚴, 爲詞者往往拘而不能騁. 宋柳耆卿周美成輩卓然爲填詞宗匠, 然其

이 글은 사를 짓는 사람들이 다만 성률에 맞추어 詞語를 정교하게 하는 데만 힘쓰고 옛날에 사가 노래로 불리어질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를 탐구하지 않는 청초 사단의 현상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다. 옛날에 사가 노래로 불렸던 것은 단지 성률이 조화를 이루었기 때문만은 아니고 그보다는 사에 표현된 성정의 깊이에서 오는 감동의 힘이 있었기 때문이다. 萬樹는 이 점을 잘 이해하고 있었다. 그리하여 유영이나 주방언 등이 단지 성률의 조화에만 신경을 쓰고 작가의 진실한 성정에 대하여 소홀히 취급한 것에 대한 잘못을 지적하였던 것이다. 유영과 주방언이 성률의 조화만 고려하고 자신들의 사가 속되다는 세인의 평가에 대하여 전혀 개의치 않았다는 표현은 지나친 감이 있다. 하지만 이러한 표현으로 성률과 더불어 성정을 고려해야 한다는 萬樹의 주장이 더욱 강렬하게 전달되고 있다.

史惟圓 역시 曹亮武의 《南耕詞》에 대한 발문에서 성률과 성정에 관한 균형 잡힌 시각을 보여주고 있다.

유영의 “버드나무 강 언덕, 새벽바람에 지는 달”이란 구절은 감정과 경치가 하늘거리니 분명히 고급의 절창이고 그 나머지는 모두 아리따운 미녀들의 일상어이다. 그러나 歌工의 논의는 또한 그 소리가 精深하고 微妙한 것을 귀하게 여길 뿐이어서 논자들은 마침내 ‘위대한 장강이 동으로 흐른다’와 같은 소식의 사를 가볍게 여기고 사가의 정격이 아니라고 하였다. 이래서야 어떻게 倚聲의 극치를 다할 수 있겠는가? 지금 남경의 사는 아름답음이 지극하면서도 호탕한 기운이 거기에 깃들여 있고, 풍류스럽고 화려하면서도 참된 뜻이 남아 있다. 대체로 소식과 유영의 장점을 겸하면서 뇌동부화하는 말은 막았으니 대가가 되기에 부끄러움이 없다. 세상에 사를 논하는 자들은 오로지 軟媚를 뛰어난 것으로 여기고 어떤 사람은 粗豪를 묘한 것으로 여기는데, 이 《南耕詞》야말로 좋은 치료제가 될 것이다.<sup>57)</sup>

意專在可歌，聲律諧矣，雖或言之俚，弗恤也。此固非也。今之負才者多假借聲律以工妙其語言，而人尤尚之，轉相倣效，初若蠶漏，終於潰隄，而詞不可問矣。(《南耕詞》 권4 跋)

57) 柳屯田“楊柳岸曉風殘月”之句，情景依依，灼然爲古今絕唱，餘皆曲蘖粉黛中常語也。然歌工之論，亦貴其聲之要渺耳，而談者遂薄“大江東”爲非詞家正格，是豈足

史惟圓은 성률로 사의 高下를 나누는 것의 부당함을 지적하였을 뿐만 아니라 성률을 고려하지 않고 성정만을 추구하는 태도도 찬성하지 않았다. 위 발문에서 우리는 오로지 성률의 조화에 기초한 軟媚를 뛰어난 것으로 여기거나 작가 성정에 기댄 粗豪를 妙한 것으로 여기는 당시 사단의 편향된 기호를 모두 바로잡으려는 의도를 충분히 읽어낼 수 있다. 이는 성률을 폐하지 않으면서 성정에 무게중심을 두었던 陽羨詞派의 이론경향을 구현해 낸 것이다. 이처럼 陽羨詞派는 사의 문학성에 중점을 두고 사의 성률의 존재를 강조하는 균형감을 유지하고 있었다. 蔣景祁가 <雅坪詞譜跋>에서 “송사 가운데는 오직 소식과 신기질이 지극히 기백이 크다. 그 때문에 그들의 말은 호방하여 매임이 없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성률에 맞지 않음이 없었다”<sup>58)</sup>고 한 말은 陽羨詞派의 지향을 대변하고 있다고 하겠다.

## V. 結 論

양선사파는 서정 수단으로서의 사의 가치를 새롭게 인식하고 사 창작에 집중하면서 운간사파의 영향 하에 놓여있었던 청초 사단의 사체 의식 및 사 창작 풍조를 일신시키기 위해 다양한 사학주장을 펼쳤다.

양선사파의 사학이론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존재론이다. 그들은 사를 소도로 보는 관점에 대하여 직접 반대 입장을 밝히고 역대 중국시가의 양식이 변화해온 이유가 이전 양식의 결함을 보충하려는 것이라고 하여 서정기능의 보충이란 측면에서 ‘詩餘’의 ‘餘’를 설명하였다. 더 나아가 시대의 변화와 더불어 문체는 변화해왔고 사체 역시 이런 변화의 흐름 속에서 생겨난 문학양식으로 문학 공동의 합리성과 필연성을 갖고 있으며

盡倚聲之極致哉? 今南耕之詞, 婉至矣, 而豪氣寓焉; 風華矣, 而眞意存焉. 蓋兼蘇柳之長, 而屏雷同附和之語, 其無愧爲大家也歟! 世之言詞者, 專以軟媚爲工, 或以粗豪爲妙, 茲編其良砭矣.(《南耕詞》 권2 跋)

58) <雅坪詞譜跋>: 宋詞唯東坡稼軒魄力極大, 故其爲言豪放不羈, 然細按之未嘗不協律也.(《陽羨詞派研究》 107쪽에서 재인용)

이 점에서 사는 經史와 그 기능과 가치 면에서 동등하다고 주장하였다.

사풍은 작가 성정에서 결정되는 것으로 보았던 양선사과는 전통적으로 本色으로 여겨졌던 婉約 위주의 사풍에 반대하였을 뿐만 아니라 前代의 특정 사풍에서 모범을 찾으려는 청초 사단의 시대풍격 논의에 대하여도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특정 풍격 유포에 대한 편중에 대하여 경계하면서도 실제 사 창작에 있어서는 명대 유민의 정서가 강하였던 양선 지역의 특성상 홍망에 대한 감정을 사에 담아내는 과정에서 호방 사풍에 기우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양선사과는 또 元 이후에 사 음악의 失傳으로 문란해진 사의 성률을 바로 세우는 것이 사학의 흥성과 직결되는 문제로 인식하고 성률 연구에 힘을 기울였다. 萬樹의 《詞律》은 그 대표적인 성과로, 당시 유전되던 詞譜의 잘못을 바로잡고 성률상의 새로운 견해들은 제시하여 사체에 대한 지식을 심화시키고 사의 음악성 회복에도 기여하였다. 양선사과는 성률을 기준으로 사를 평가하거나 성률에 얽매어 성정을 소홀히 하는 것에 반대하고 성률을 고려하지 않고 성정만을 추구하는 것도 반대하여 성률과 성정에 대하여 균형 잡힌 시각을 보여주고 있다.

양선사과는 강희 초기 30여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활동하면서 창작의 질과 양에서 뿐 아니라 이론적 측면에서 커다란 족적을 남긴 사과였다. 사를 經史와 대등한 지위로 격상시킨 파격, 사를 홍망의 감정 표현에 최적의 담체라고 파악한 대담성, 그리고 성률연구를 통하여 사의 흥성을 도모했던 학문적 진지함 등은 청대 어떠한 사과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양선사과의 특징이었다. 비록 청대 문자옥의 강화로 그 위세가 꺾이어 지속적인 발전을 하지 못하였지만 청 후기 상주사과의 등장으로 그 사론의 핵심 가치가 되살아났다는 것은 양선사과 사론의 先驅性을 잘 보여준다고 하겠다.

## &lt;참고문헌&gt;

- 陳維崧, 《陳檢討四六》, 四庫全書本  
 陳維崧, 《迦陵文集》, 四部叢刊本  
 陳維崧, 《湖海樓詞集》, 臺北: 臺灣中華書局, 1971.6  
 周韶九 選注, 《陳維崧選集》,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94.10  
 萬樹, 《詞律》, 臺三版; 臺北: 臺灣中華書局, 1978.1  
 任繩隗, 《直木齋集》, 清 光緒14年刻本  
 曹亮武, 《南耕詞》  
 陳乃乾 輯, 《清名家詞》, 上海: 上海書店, 1982.12  
 唐圭璋 編, 《詞話叢編》, 北京: 中華書局, 1986  
 施蟄存 主編, 《詞籍序跋萃編》, 北京: 中國社會科學出版社, 1994.12  
 張仲謀, 《明詞史》, 北京: 人民文學出版社, 2002.2  
 嚴迪昌, 《清詞史》, 淮陰: 江蘇古籍出版社, 1990.1  
 嚴迪昌, 《陽羨詞派研究》, 濟南: 齊魯書社, 1993.2  
 方智范 外, 《中國詞學批評史》, 北京: 中國社會科學出版社, 1994.7  
 陳水雲, 《清代前中期詞學思想研究》, 武漢: 武漢大學出版社, 1999.10  
 李康化, 《明清之際江南詞學思想研究》, 成都: 巴蜀書社, 2001.11  
 黃拔荊, 《中國詞史》, 福州: 福建人民出版社, 2003.5  
 孫克強, 《清代詞學》, 北京: 中國社會科學出版社, 2004.7  
 姚蓉, 《明清詞派史論》, 桂林: 廣西師範大學出版社 2007.7  
 王雲五 主持, 《合印四庫全書總目提要及四庫未收書目禁燬書目》, 臺北 :  
 臺灣商務印書館, 1970.12  
 賀光中, 《論清詞》, 싱가포르: 東方學會, 1958  
 徐珂 編著, 《清代詞學概論》, 上海: 大東書局, 1926.10  
 許世旭, 《中國近代文學史》, 서울: 法文社, 1996  
 吳金成 외, 《明末·清初社會의 照明》, 서울: 한울아카데미, 1990.9

- 馬興榮 외 주편,《中國詞學大辭典》, 浙江教育出版社, 1996.10
- 嚴迪昌, <論陽羨詞派>《詞學》 第4輯, 華僑師範大學出版社, 1986.8, 62-73쪽
- 張宏生, <清初詞史觀念的確立與建構>, 《中國古代近代文學研究》 2008.6, 157-162쪽
- 줄고, <朱彝尊詞論研究>, 《中國文學》 제39집, 2003.5, 137-154쪽
- \_\_\_\_, <朱彝尊詞研究>, 《中國語文學》 제44집, 2004.12, 397-423쪽
- \_\_\_\_, <雲間詞派詞學研究>, 《中國文學》 제47집, 2006.5, 83-99쪽
- \_\_\_\_, <陳子龍詞研究>, 《中國文學》 제56집, 2008.8, 177-198쪽

### <中文提要>

本稿在尊體論·風格論·聲律論這三個方面分析和論述了陽羨詞派的詞學理論.

在尊體方面, 該派反對當時詞壇上的小道觀念, 闡明歷代中國詩歌樣式的不斷變化是爲了補充以前詩歌樣式抒情功能的缺點, 從補充的角度說明詩餘的餘. 他們又主張詞體具有文學共同的合理性或必然性, 所以詞與經史在其功能和價值上同等. 在風格方面, 該派認爲詞的風格決定於作家的性情, 反對以婉約爲本色的傳統觀念和依據前代特定詞風來找新出路的態度. 而在作詞上, 他們却偏向於豪放. 在聲律方面, 該派認爲糾正聲律就是詞學興盛的前題, 致力於聲律研究. 萬樹所編《詞律》糾正傳統詞譜的錯誤, 指出聲律方面的種種問題, 多所發明. 可該派對聲律和性情方面不失均衡感.

該派在康熙初年活動時間不長, 但創作和理論方面貢獻很大. 清代盛世不合該派的豪氣, 文字獄挫傷該派的氣勢, 陽羨這個名稱就不久被忘了, 可清後期常州詞派重新發揮該派的詞學理論, 這就證明該派詞學理論的先驅性.

주제어 : 陽羨詞派詞論, 尊體論, 風格論, 聲律論